

## “이한열과 어머니... 우리는 많은 빛을 쬐었습니다”

배은심 여사 빈소 줄 지은 시민들  
“母子의 상처와 의지 잊지않겠다”  
전태일 동생 전태삼도 빈소 찾아  
영화 ‘1987’ 장준환·강동원 조문

“이한열 열사와 그의 어머니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슴에 박힌 상처·응어리 다 내려놓고 가시는 길은 그저 편안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모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장례 이틀날인 10일에는 시민들은 물론, 문화·연예계 등도 고인의 가는 길에 명복을 빌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이른 시간이지만, 빈소에는 찾아온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분향소 입구에 줄지어 선 많은 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빈소에 들어선 한 조문객은 배 여사의 영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연신 맺힌 눈물을 닦아내던 그는 상주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마치고 빈소를 나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한열 열사의 진흥고 1년 후배 최중섭



10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건호 기자

(55) 씨였다.

최씨는 “대학 시절, 신문에 나온 한열이 형의 소식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시 충격이 정말 컸다”며 “그 사건 이후, 저도 투쟁 현장에 정말 많이 나갔다. 한열이 형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다”고 말을 이었다.

배 여사를 ‘어머니’라 칭한 그는, “어

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뵈어야 했는데, TV나 뉴스로 간간히 소식만 들었던 것이 너무 한 스럽다”며 “어머님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찾아 왔다”고 덧붙였다.

조문을 위해 타지에서 찾아온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경기도 김포에서 온 이승우(49) 씨는 “거리도 멀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배 여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도저히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나라와 국민 모두 이 모자(母子)에게 빛을 지고 있지 않은가.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

해 광주에 왔다”고 했다.

이어 “배 여사가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 아픔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이 땅의 민주·인권을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하시면 좋겠다. 잊지 않겠다”고 추모의 말을 남겼다.

이 밖에, 1970년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던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도 홀로 빈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밝혔다. 그는 “어머니의 힘찬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며 애절한 심정을 전했다.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의 장준환 감독도 전날 조문한 배우 강동원에 이어 이날 빈소를 찾았다. 장 감독은 “어머님은 연세대 앞에서 아들이 쓰러지신 뒤, 남은 30여 년간 치열한 투사로 살아오셨다. 이제 편히 쉬면서 아들과 못다 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명복을 빌었다.

한편, 배 여사는 지난 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8일 퇴원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쓰러져 다음날 오전 5시28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별세했다. 배 여사의 장례식은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께 진행돼 망월동 8묘역에 안장된다.

▶관련기사 4·17면

정성현 기자

## “민주유공자법 제정” 커지는 목소리

고 배은심 여사, 생전 법 제정 염원  
예우 대상 ‘직계존비속’ 제한 맹점  
“더 이상 법 제정 늦춰서는 안돼”

지난 9일 생을 마감한 고(故) 배은심 여사가 생전 염원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 가운데 고 배은심 여사처럼 생을 마감했거나 고령자가 많아 하루빨리 유족이라도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표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따르면, 현재 남은 회원(유족)은 100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

서 80대 초반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표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의 예우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등이다. 관련 법의 지원 대상이 민주화운동 희생자 대부분이 20대의 미혼의 나이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사망하면서 예우 대상이 부모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집중된 민주열사 희생 이후 무려 40년이 지나면서 희생자 부

모가 고령이 됐거나 이들의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전 유가협 이사장에 이어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까지 눈을 감으면서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유가협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이날로 95일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배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인 지난해 12월26일에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위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유가협 관계자는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닌 희생자들을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며 “돌아가신 유족분들이 바라는 건 ‘내 자식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다’는 것 단 하나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초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일명 ‘민주유공자법’을 공동발의했으나 야권의 특혜논란에 철회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김해나 기자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

### 중국의료기기인증(CFDA) 획득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로 성능이 인증된 조달우수제품으로 해외에서는 CE인증, TFDA, JFDA, CFDA를 획득한 자동심장충격기(AED) 포함 의료기기제조 전문회사입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료기기제조 전문회사

www.nanoomtech.co.kr

본사\_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7 대표번호\_062-955-8588 Fax\_062-955-8589 E-mail\_info@nanoomtech.co.kr